울산대학교 의과대학

March of 2018 Vol.22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NEWS LETTER** 소식지

발행인 채희동 **편집인** 임영석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TEL** 02-3010-4207~19 **Fax** 02-3010-4240 **Homepage** http://www.medulsan.ac.kr **소식지 홈페이지** http://www.medulsan.ac.kr/eletter

02 [Interview] 채희동 신임학장 **04** **[기획기사]** 세계적인 의과학 연구 메카로의 도전…아산융합의학원 본격 개원 **06** **[의대소식]** 우리 의대 새 미션 선정…개교 30주년 이정표 기대 **08** **[우수연구]** 국소진행성 · 전이성 대장암 환자, 새 치료 가능성 높여 **09** **[학생코너]** 본과1학년선택과정 4과목 리뷰 **10** **[의대소식]** 2018학년도 의예과 경쟁률 UP **11** **[건강칼럼]** 학생들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하기 **12** **[의대소식]** 의대 · 대학원 졸업식…미래 위한 새 출발 **13** **[IT 100배 활용하기]** Textexpander를 통한 시간절약 **14** **[의대소식]** 의사로의 첫발…의예과 입학식 및 간담회 개최 **15** **[의대소식]** 예비의사 첫걸음 '화이트코트 세리머니' **16** **[의대소식]** 의과대학장 이 · 취임식 **17** **[의대소식]** 교육과정평가 및 교육계획 보고회 개최 **18** [Interview] 임영석 홍보위원장 **23** **[편집후기]**

우리 의대만의 특색 만들고, 실질적 세계화 추진

자존감 및 자신감 강화 위한 교육시스템…교육 과정 과감한 개선 등 기대

우리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채희동 교수가 지난 1월 3명의 교수가 입후보하여 진행된 신임 학장선거에서 96.5%의 교수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교수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신임 학장에 선출되었다.

신임 채희동 학장은 미국 연수를 다녀 온 후 교무의학과장, 학생부학장, 교무부학장을 포함하여 12년간 계속 의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 신임 채희동 학장을 만나 향후 우리 의대 운영방향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교육 과정 개편 및 수평적 평가방식 도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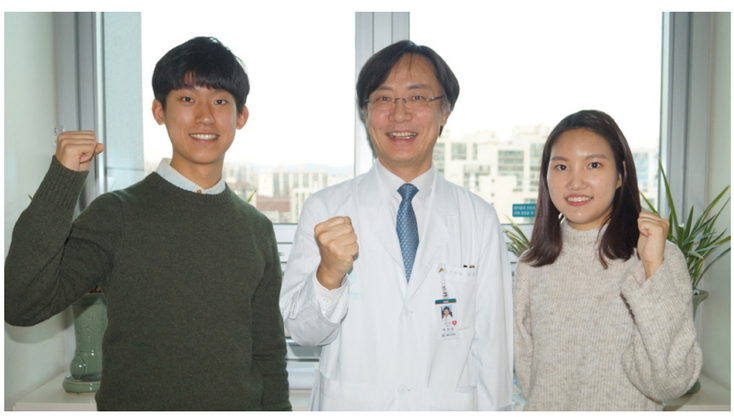
현재 예과 1년과 본과 5년으로 구성된 교육 체계 및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하여 예과 교육 과정 강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예과 기간 동안 인문과 교양 수업, 다양한 경험 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생각이다.

본과 교육 과정에서는 급속히 많아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기존의 강의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전 교수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강의는 줄이고 해결 능력과 협업이 가능한 의학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채 학장은 “현재 의대 강의는 너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1차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학지식을 쌓고 전문적인 내용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의대의 장점으로 알고 있는 장학금, 기숙사, 하버드 연수 등이 장점이기만 한 것인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며, “실질적인 변화들을 통하여 의대 및 우리 졸업생들의 위상과 경쟁력은 더욱 강화하고, 재학생들에게는 행복한 의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기 학생, 채희동 학장, 박지민 학생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는 현 상대 평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면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평적 평가 방식과 지필고사 외에 발표, 실기, 수업참여도 등 다양한 평가방식도 이용하며, pass/non-pass바탕으로 하여, 제도 등도 도입하여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 의대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입학하고, 학부 수준은 전국 최고임에도 졸업 후 성과가 그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우리 의대만의 특색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소수 의학 영재를 양성하는 울산의대’라는 특징적 목표에 맞게 우리 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을 확립, 여기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신입생 선발에 인적성 면접을 포함한 입학 제도를 개선한다.

학생들의 진로 지도도 좀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강화하여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여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 수행 능력이 함양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교육 인센티브 도입…교육만으로도 승진 가능 추진

우리(울산)의대 교수라는 직함에 아이덴티티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실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임에도 “우리 의대, 우리 학생”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라는 개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채 학장은 힘주어 말했다.

실제 교육과정 개선에 봉사하는 교수진들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과감히 도입,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교육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의대 교육에 있어 전문가 교수 또한 양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직급에 상관없이 책임 교수로서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 과정의 검토와 과감한 개선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 이런 교육에 대한 봉사로 승진이 가능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교육을 전담할 교수팀을 구성, 각 코스의 커리큘럼과 강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결정하고, 강의 외에 TBL, 다학제 강의 등의 다양한 수업방식을 활용, 교수-학생간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교육이 되도록 하여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연구 부분에서는 시작된 아산융합의학원을 경쟁력있는 대학원 과정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산생명과학연구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교수들의 연구 하부구조를 튼튼히 마련하게 됨으로써 결국 연구 역량 강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연구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중개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임 교수와 초보 연구자들의 연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활발한 교류가 가능한 실질적인 연구 교실의 개설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지원 강화

지난 4년 간 울산대학교병원과 강릉아산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많이 증가됐고,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병원과 강릉아산병원 교수진의 강의 비중도 늘리고, 대학원 강의 참여도 적극 고려하는 것은 물론 교수진의 교육 참여에 대한 교육 점수를 개발하고 상향 조정하여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강릉아산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연구비 지원 제도도 확대하고, 서울아산병원과 임상 연구를 함께 하는 시스템을 확립, 통계나 논문 작성 지원 서비스 등 연구 환경을 공유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울산대학교병원과 강릉아산병원 교수진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처우 문제도 병원장-학장 협의체를 통해 건의하고 조율하여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학창시절 3가지 노력 강조

훌륭한 교수 혹은 의사, 연구자가 되기 위하여 학창시절 필요한 노력으로 채 학장은 ▲다양한 경험 ▲성실한 노력 ▲따뜻한 마음 등 3가지를 강조하였다.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도 다양한 경험과 소통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리더쉽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채 학장은 “절대 성적만 뛰어나다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적 1~2점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과 선택에서도 인기과, 비인기과 등 시류에 흔들려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본인이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부모님들께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아닌 만큼 스스로 도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였다.

채 학장은 “개교 30년을 맞는 지금, 의대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의대의 브랜드를 향후 30년 내로 초일류를 만들겠다는 첫 걸음을 이제 시작할 것이며, 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의과학 연구 메카로의 도전 …아산융합의학원 본격 개원

우수 의과학 PhD 육성과정…국내 최고 장학금지원, 박사 후 연수과정 등 지원 검토

◀오른쪽 가운데부터 오연천 총장, 박치모 교학부총장, 김기수 의무부총장, 조홍래 산학부총장
▶왼쪽 가운데부터 송재관 전 학장, 이승규 의료원장,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김송철 아산융합의학원장

우리 의대가 지난 3월 1일 아산융합의학원을 본격 개원하고, 지난 2월 20일 현판식 및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아산융합의학원(Asan Medical Institute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AMIST)은 우리 의대 대학원 프로그램 중 Non-MD PhD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풍납동 캠퍼스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활동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일선 진료에서 충족되지 않는 문제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 환경을 조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고의 장학금 지원은 물론 박사학위 이후 외국 유수 기관에서 박사 후 연수과정(Post-Doc fellowship)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인재들은 풍납동 캠퍼스내의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선발될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통해 일류화 사업 개선 과제 도출·추진

우리 의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약 1년간 '우수 연구인재 확보를 위한 인프라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의 컨설팅을 통하여 의과학 대학원 일류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 추진해 왔다.

▲프리미엄 교육과정 도입

우선 관련 교수 회의를 거쳐 전공별 맞춤 교육을 위한 필수 교과목을 확충(2016년 12과목->2017년 19과목)하였다. 또 학위과정별 필수 이수 학점을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과학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였다.

▲우수인재 확보 활동 강화

△2017학년도 프리미엄 과정 학생 선발=4학기 동안 파격적인 장학금 지급 뿐만 아니라 생활비 및 기숙사비까지 지원하는 프리미엄 장학 제도를 수립, 별도의 입시 전형을 통하여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구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전국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연구 분야의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을 받아 약 30명을 선발, 7월 4주간 연구체험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아산융합의학원의 '의과학 연구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분자유전학실험실, CATS, 미토콘드리아질환연구실, 점막면역연구실, 감염연구실, 시스템분자면역연구실, 대사질환연구실, AMCSE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총 98명이 지원하였고, 최종 25명이 수료하였다.

▲대학원생 연구 · 교육지원 강화 + 교수 연구 활성화 지원

△박사 후 연구과정 지원=별도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연간 3명씩 2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한다.

△전문의 연구교수 박사과정 지원=별도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 4학기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장학 제도 확충

△해외 학회 발표시 일정 비용 대학원에서 지원=기존에는 제한된 인원에게만 지원했다면, 제도를 개편하여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의료비 감면=기존 의과대학 학부생들에게만 지원하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대학원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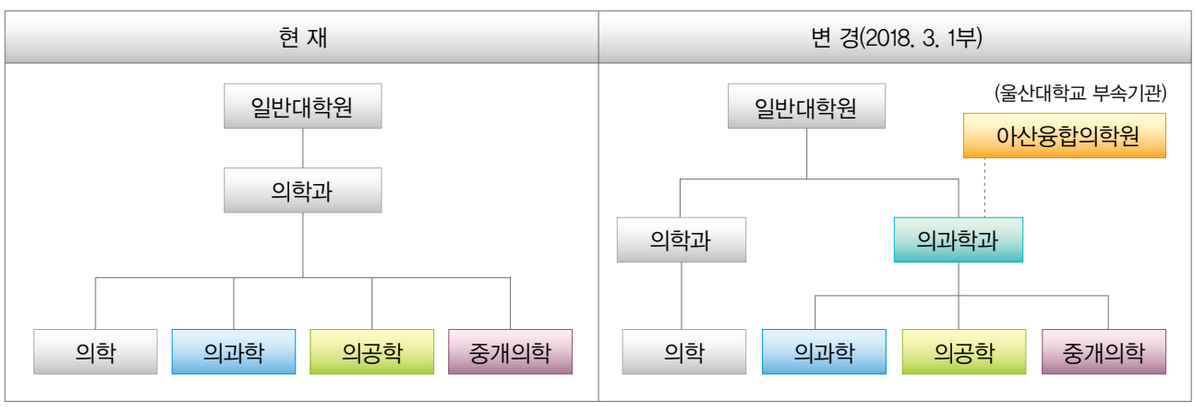
△연구장학금(논문게재장려금) 신설=재학 중 논문을 게재할 경우, 논문 점수(Impact factor)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대학원 직제 개편

△의과학과 신설=의과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의학과에 속해 있던 의과학, 의공학, 중개의학 전공을 의과학과로 독립시켰다.

△석·박사 통합과정 신설=재학 중 보다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설하였다.

△아산융합의학원 신설=울산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신설하여 의과학과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장학제도 개선 추진

김송철 아산융합의학원장

올해 아산융합의학원의 최대 목표는 지속적인 장학제도 개선이다. 이를 위하여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프리미엄 장학 제도를 발전시켜, 장학 수혜 기회 및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한 연구 실적을 위한 독려 방안도 모색키로 하였다.

성적 뿐 아니라 지도교수들의 연구 실적도 장학 사정을 위한 자료로 포함시키며, 우수 학생(박사 및 통합과정 대상)으로 선발 시 해당 학기 생활비 및 기숙사비 전액도 지원한다.

매 학기 새롭게 장학 수혜자를 선발해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연구 실적을 장학 선발에 적용해 연구를 위한 동기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송철 아산융합의학원장은 "최근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의학과 순수 과학의 융합, 나아가 세대 간 융합, 문화 간의 융합 등 모든 분야에서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고 지성의 우리 의과대학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지닌 서울아산병원의 지원에 힘입어 탄생한 AMIST는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연구 열정을 바치시는 의과학 연구자 여러분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며, 세계 최고의 의과학 융합대학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AMIST에서 열정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컨설팅 관련 내용은 소식지 14호를 참고하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의대 새 미션 선정…개교 30주년 이정표 기대

교육기획평가위원회 제안

우리 의대가 새로운 미션(mission)을 선정하였다.

우리 의대는 지난 2014년 개교 25주년을 맞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에 관한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선정한 바 있었다. (의대 소식지 2호 참고)

2017년엔 교육, 연구 및 사회 봉사 등 대학 활동의 전반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대학의 미션과 비전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이번호에는 새 미션 선정 및 결정과정에 대하여 소개한다.

개교 30주년 앞두고 새 방향 설정 추진

이번 미션과 비전 등 제정은 우리 의대가 개교 3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우리 의대는 개교 당시부터 새로운 기획과 시도로 주목을 받았으며, 그 동안 예상을 뛰어 넘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외부 환경과 사회의 요구도 많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우리 의대 교육기획평가위원회(위원장 유은실 교수)는 우리 문화에 맞고 설립 목적에 합당한 공통의 가치들을 논의하였고 설문조사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교육기획평가위원회, 학년별 학생 대표들과 후보 항목 선정

대표적으로 제시된 초안은 ▲전문 지성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공동체 번영에 기여한다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성과 실력을 겸비한(지도자로서의) 의료인을 양성한다 ▲최고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랑과 헌신으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 ▲건강의 희망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참 의료를 실천하고 발전시킨다 ▲의료의 실천과 발전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희망을 나눈다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획평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설립자의 뜻과 도전정신에 대한 구성원의 공동 가치에 공감대를 모아 ▲건강의 희망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사랑과 헌신으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등 3개의 후보 항목을 선정하였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얻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학년별 학생 대표들과 미팅을 하고 설명을 하였으며,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건강의 희망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한다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등 3개의 후보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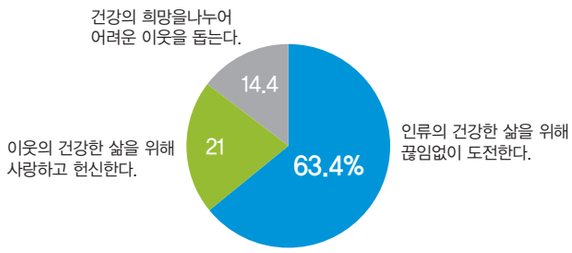
총 590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인 교수, 동문, 학생, 학부모, 직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590명(교수 199명, 학생 156명, 학부모 134명, 동문 86명, 직원 15명 순) 이었다.

응답율은 학생이 64.5%, 학부모 60.1%, 직원 55.6%, 교수 27.9%, 동문 10.7%의 순이었다.

문항별 설문 결과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가 63.4%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구성원 집단에서 50%를 넘는 비율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주임교수회의 거쳐 최종 확정…대내외 의견도 담다

교육기획평가위원회에서는 이런 결과를 취합하여 학장단에 전달하였고, 주임교수회의를 거쳐 확정이 되었다.

미션이 정해짐에 따라 비전과 목표를 선정하는 작업이 후속으로 이루어 졌다.

실제 지난 2018년 2월 교수,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 사회, 타 의대 등까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7 교육과정평가 및 2018 교육계획 보고회'에서 우리 의대의 미션과 비전, 교육 목표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박주현 교수는 "이를 통하여 30주년을 맞이한 울산의대의 새로운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가 선정이 되었다"며, "2018학년도부터 울산의대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Mission (사명):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Vision (비전) :사회에 기여하는 의학 교육기관의 모범과 기준이 된다.

Goal (목적) :

교육 –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한다.

연구 – 학문을 발전시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봉사와 사회적 책무 – ① 참된 진료를 실현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② 건강, 보건의료제도, 지역 및 국가, 국제보건의료의 이슈에 참여하며 책임을 나눈다

교육목표 – 소통 / 윤리 / 창의 의 리더십을 키운다.

졸업성과 – ① 전문 직업성
② 교육과 연구
③ 소통과 협력
④ 사회적 책무
⑤ 자기 개발
⑥ 환자 진료 *(기본수준의 진료역량)

교육전략 :

바람직한 의사상(울산의대 졸업성과)을 달성하고 졸업 후 교육 및 평생학습에 대비하는 교육전략.

① 전문가로서의 인성, 가치관, 행동 등은 지식과 술기 못지않게 강조된다.
② 공식과정뿐 아니라 비공식 교육과정, 교육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배움이 일어나게 한다.
③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활용을 강조한다.
④ 스스로 교육을 기획하고 팀으로 학습하며, 동료와 가르침을 주고받게 한다.
⑤ 자신의 발전을 스스로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⑥ 교육, 연구, 진료 모두에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강조한다.

* 기본수준의 진료역량 : 6년간의 기본의학교육(Basic Medical Education)을 마친 후,

① 다양한 의료의 영역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
② 전문영역의 졸업 후 교육을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졸업 후 단계에 따라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미션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교육목적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

교육목표

소통, 윤리, 창의의 리더십

졸업성과

국소진행성 · 전이성 대장암 환자, 새 치료 가능성 높여

유방암 적용가능성, 맞춤치료 가능성도 높여

핵의학교실 문대혁 교수

융합의학교실 김석영 교수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항암제 치료 방법 및 맞춤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 의대 융합의학교실 김석영, 핵의학교실 문대혁 교수팀은 항암 치료에 대한 암세포의 저항성을 거꾸로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역이용하였다.

동물 실험 결과 대장암에 대한 capecitabine(카페시타빈) 치료 후 thymidine 구출경로의 활성화에 의한 capecitaibne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 TAS-102[trifluridine(트리플루리딘)/tipiracil(티피라실)]의 암세포 섭취가 2배 내지 13배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18F]fluorothymidine 양전자단층촬영 결과 예측되었다.

실제 capecitabine과 TAS-102의 병합치료가 단독 투여에 비하여 항암 효능을 협동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대장암 동물모델에서 증명하였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인체대장암 동물 모델은 혈중 thymidine(티미딘) 농도가 사람보다 약 10배 더 높다. 높은 thymidine 농도는 TAS-102의 암세포 섭취를 낮추기 때문에, 사람에서는 더 높은 항암 효능의 협동적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항암 효능의 상승 작용은 암세포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부작용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하여 ▲capecitabine과 TAS-102의 병합요법으로 항암 효능의 협동적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음이 임상시험에서 증명된다면, 앞으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효능이 높고, 부작용이 적으면서, 입원하지 않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항암제 치료의 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체 대장암 세포주에서 얻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capecitabine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방암에게 적용할 수 있다. ▲capecitabine과 TAS-102의 병합효과의 협동적 상승은 thymidine의 암세포 구출 경로 활성화 정도와 비례하므로, [18F]fluorothymidine 양전자단층촬영술로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맞춤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 핵산생산을 억제 하는 다른 많은 항암제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다른 항암제와 TAS-102의 병합요법에도 활용될 수 있다.

문대혁 교수는 "이러한 기대대로 capecitabine과 TAS-102의 병합요법이 동물에서 얻은 결과 보다 사람에서 더 좋은 효능을 보이면서, 독성의 증가가 없는지는 추후 임상 시험을 통하여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2017년 12월 Cancer Research (IF : 논문피인용지수, 9.122)에 게재되었다.

한편 좋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 문 교수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Equator network에서 제공하는 지침서를 숙지하는 등 연구의 기본에 충실하고, 다양한 여러 분야를 하나로 수렴하는 연구 주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8F]fluorothymidine 양전자단층촬영
암세포의 thymidine 암세포 구출경로의 활성화를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알아낼 수 있는 영상법.
이번 연구에서 capecitabine과 TAS-102 병합요법의 항암 효능의 협동적 상승을 [18F]fluorothymidine 양전자단층촬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Capecitabine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대장암과 유방암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정제로 된 먹는 항대사성 항암제이다. 하지만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capecitabine에 의해서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핵산의 생산이 억제되더라도, 외부로부터 thymidine을 얻는 암세포의 구출 경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 TAS-102[trifluridine/tipiracil]
2014-2016년에 일본, 미국, EU에서 승인을 받은 전이성 대장암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정제로 된 먹는 항암제 신약이다.

본과1학년선택과정 4과목 리뷰

8주 동안 수강…새로운 시도와 내용 만족

2017년부터 우리 의대에 새로운 교과 과정이 하나 도입되었다. 의학 이외의 과목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선택과정'이다. 선택과정은 본과 1학년 학생들이 2학기에 8주 동안 수강하였으며, 학생들은 <생명철학>,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과 의료>, <R 프로그래밍>의 4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

각 선택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김은영, 김경훈 학생기자들의 리뷰를 통해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전체 내용은 우리 의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철학

- 도덕적, 윤리적 심성과 인문학적 소양 확보에 도움

생명철학은 본1 선택수업 네 과목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이다.

병리과 이인철 교수의 지도 아래 총 19명의 학생이 생명철학을 공부했다. 평소 철학을 접하지 못한 채 의학 공부에만 매진해오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철학에 익숙해지도록 '암과 줄기세포', '신경면역계와 민주주의', '체내 세균 : 나는 누구인가?' 등의 의학과 철학이 고루 담긴 다채로운 내용을 수업 주제로 다루었다.

의과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다는 새로운 시도답게, 강의 진행 방식도 다른 일반적인 수업에 비해 두드러지는 점이 많았다.

매 수업마다 전반부는 교수의 강의를 들었지만, 후반부는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자유토론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진행자가 직접 준비해온 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미토콘드리아와 원자력발전소의 유사성', '오늘날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현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와 같은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재미있는 주제를 놓고,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저마다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강의 중 2번의 '저널 클럽(Journal Club)' 시간에는 논문을 읽고 요약해서 발표하는 연습도 해보았다.

마지막 시간에는 모든 학생이 자유로운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논평함으로써, 생명철학과 함께한 8주를 통해 바뀐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전까지는 흥미가 없었지만 이번 강의를 듣고 철학과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앞으로 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밝힌 학생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성숙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과 의료

- 인공 지능에 대한 궁금증 및 새로운 출발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 인공지능과 의료 수업은 AI에 대해 궁금해하던 8명의 학생들이 들었던 수업이다. '인공지능'은 최근 들어 의대생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우리는 선배 의사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공 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의사보다 인공지능의 진단을 더 신뢰한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인공 지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업이 되었다.

2시간의 수업 중 앞 시간은 현재 인공지능과 의학이 접목된 분야에 있는 교수들이 수업을 하였다. 수업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루기도 하고, 인공 지능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 배우기도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이 무조건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실례들에 대해 들으면서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면모를 모두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과 의사가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와 생각들을 배우고 스스로 떠올려볼 수도 있는 시간이 되었다.

2시간 수업 중 뒷 시간은 학생들이 각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문이나 글 등을 읽고 이에 대한 요약과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보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의료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부터 나중에는 'AI의 과제와 전망', 'AI를 이용한 진단 결과에 대한 논문' 까지 점점 깊이를 더해가면서 찾아보고 수업에서 배운 것, 자신이 읽은 것, 생각한 것 등을 접목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시간에는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팅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를 실제로 사용한 예시들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항상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3D 프린팅을 보면서 현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의 발전이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정확도와 질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실 견학 후 각자 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그 시간에 가장 많이 공감한 부분이 "인공지능

은 마냥 두려워하고 있기 만할 존재가 아니다. 의사와 협동해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조 의사, 동반자이다." 라는 생각과 "이번 수업이 좋은 시작점이 되었으니, 이를 기반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고 싶다." 라는 것이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 분야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준 수업이었다는 평가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 삶이란 무언인가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 마련

병리과 유은실 교수가 강의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는 총 8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수업의 진행방식은 일방적인 강의 형식과는 달랐다. 강의 초기에 '우리나라 장례 문화' 등의 주제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두어 번 가졌고, 이후에는 매번 영상을 본 후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들은 미리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에 참여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이 끝나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와 같이 죽음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다양한 책을 읽으며 학생들은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한 바를 토론하였다.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교수 및 펠로우 분들도 함께 수업에 참여해 진지한 고민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에서는 의학적인 의미의 죽음을 넘어 다방면에서 죽음을 탐구하였다.
학생들은 ▲죽음의 과정,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의 주위 사람들의 정서,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것인가, ▲호스피스, ▲사전의료의향서 등에 대해 폭넓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죽음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고 깊이 고민함으로써, 역으로 삶이란 무언인가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R 프로그램 배우기
…R 언어 배우고, 임상약리학 사용경험도

임상약리학 배균섭 교수가 수업한 R 프로그램 배우기 수업은 통계 정리에 매우 유용한 R 프로그램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R 프로그램은 오픈 플랫폼 통계 소프트웨어로서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https://www.r-project.org/).
임상적인 연구나 약리학 부분에 있어서 통계학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보니, R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 수업은 교수의 설명과 함께, 각자 자신의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직접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초반에는 R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분야에 주로 쓰이고 있는지 등을 배웠다. 그런데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아직 의학 통계를 안 배워서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통계의 기본이론에 대하여 수업하는 시간을 추가로 가진 덕분에 수업을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그 다음부터 계속 다양한 사용법을 배우면서 이를 적용해 보기 위하여 '카페인이 체중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줄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값들을 이용하여 실제 임상약리학에서 어떻게 쓰는지 경험해 보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표도 만들어 보고 연구 결과도 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한 번도 배울 기회가 없던 R 언어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R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게 됐을 뿐더러, 이를 활용하여 어떤 분야에 쓰일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수업이 되었다는 평가다.

의대소식

2018학년도 의예과 경쟁률 UP

수시 일반 83.1 : 1, 정시 4.25대 1 기록

2018학년도 의예과 정시모집 전형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경쟁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4명을 선발한 수시 일반에 총 1,995명이 지원해 83.1:1, 4명을 선발한 지역인재의 경우 207명이 지원해 51.8: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평가는 수리논술과 의학논술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시-논술전형은 총 28명을 선발하였다. 또 12명을 선발한 정시모집의 경우 51명이 지원해 4.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능100%가 반영된 정시모집의 합격자는 지난 1월 23일 발표되었다.
한편 2018학년도는 2017학년도에 비해 여학생이 1명 더 많아진 9명, 재수생이 2명 더 많은 20명을 기록하였다.
또 일반고는 2017학년도에 비해 2명 줄어든 18명, 자사고도 1명 줄어든 18명을 기록한 반면 과학고가 2017학년도 1명에서 4명으로 약진하였다. 이번에도 외국어고 합격자는 없었다.

학생들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하기

예방위해 신체활동, 규칙적인 생활, 적극적 사회 활동 필요

정신건강의학교실 박장호 교수
(울산대학교병원)

누구나 살면서 우울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절망감에 빠져 들기도 한다. 또한, 가까운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 중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거나,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단순히 우울한 기분을 벗어나 병으로서의 우울증은 경험하게 된다.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기분의 강도가 다르고, 생각과 행동 및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학생 우울증…성인과 표현형 다르고, 학업적 영역에 손상도

성인 우울증은 울적한 기분, 답답함, 흥미의 감소, 식욕/체중의 감소, 불면, 의욕 저하, 자신이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거나 쓸모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죽고 싶은 생각 등으로 나타난다. 학생 우울증은 전형적인 증상 이외에 아래의 증상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에 간과하기 쉬운 우울 증상]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신체 증상 (두통, 복통, 실신)
▲지나친 수면, 폭식, 급격한 체중의 증가
▲평소와 다른 문제행동 (짜증,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학교에서의 기능 저하 (등교거부, 무단결석, 집중 및 성적 저하)

우울증에 걸린 학생은 자신과 세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생각,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어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우울증은 성인기 우울증에 비해 높은 지속성과 재발률을 보이고, 학업적, 대인관계적, 사회적 영역에 손상을 나타낸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업적 성취 또는 대인관계적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켜야 할 시기에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거치지 못 하게 되고,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을 동반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우울증 경험 학생 보호자들 "학생들 이야기 잘 들어주어야"

우울증을 가진 학생들의 부모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잘 하던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자녀들의 우울증에 의한 증상을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기분의 변화 정도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을 덜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나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학생의 행동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야단치거나 꾸중하고 비판하게 되면 도움을 주어야 할 학생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학생 보호자들이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방법]

▲학생들이 평소와 달리 행동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문제행동이나 꾀병으로 보지 말고, 경청과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
▲문제 행동을 보일 때는 그 이면의 외로움, 분노, 걱정, 불안 등의 감정이 숨어있지 않나 살펴보아야 한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 공감을 하되, 섣부른 충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간을 가지고 격려하며 도와주면 나을 수 있는 병임을 명심하며, 부모에게도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울 증상을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할 수 있지만 조급하게 강요하게 되면 역효과만 생기게 된다.
▲치료를 시작했다면 지속하도록 권유하고, 만약 투약 하는 중이라면 약을 잘 먹도록 돕는다.

우울증 예방위한 3가지 방법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신체 활동, 규칙적인 생활 리듬, 대인 관계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체활동으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적어도 30분, 중간 정도의 강도로 규칙적으로 해

야 한다. 중간 정도의 강도라하면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는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라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운동을 중단하면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달리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달리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다. 처음 3일, 3주 고비를 잘 넘기면 더 쉽고 즐겁게 달릴 수 있게 된다.
규칙적인 생활이라 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작은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 규칙적으로 먹고, 수면 리듬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식욕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정량의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기 ▲채소, 과일 등의 신선식품 섭취하기 ▲인스턴트 식품, 단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마트에 가서 장보기 ▲직접 요리 하기 등의 활동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취침 시간을 정해 놓고, 잠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실 우리의 수면 시간은 자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을 결정하면 그 시간에 따라 자는 시간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즉,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우울해지는데, 사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누가 대신해서 찾아 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친밀감을 통해서 해소한다. 우리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때, 가치 있고 보람을 느끼는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살아 있다고 느끼고,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일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의대소식

의대 · 대학원 졸업식…미래 위한 새 출발

“의료계의 미래를 리더하는 졸업생 되기를”

지난 2월 우리 의과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수 등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들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였다.
(표지 사진 참고)

제25회 의학과 학위수여식 및 히포크라테스선서식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의과대학 1층 강당에서 의학과 학위수여식 및 제25회 히포크라테스선서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승규 의료원장, 김기수 의무부총장, 송재관 학장,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이호승 교수협의회장, 최상일 의대동창회 회장 등을 포함하여 의대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식전행사로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이 의예과 1학년 시절 교양(합창) 수업으로 배운 합창 공연을 진행해 즐거움과 함께 색다른 의미를 전하였다.
제1부 의대 학위수여식에선 국민의례, 애국가제창, 학사보고에 이어 학위 수여로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김동영 학생), 우수상(문성호 학생), 공로상(김지애 학생기자), 송파구의사회장상(박지민 학생기자)등을 비롯한 약 11명의 졸업생에 대한 다양한 수상이 진행되었다. 식사로 학장, 서울아산병원장, 의대동창회장 등의 격려사, 졸업생 답사 등도 이어졌다.
제 2부 학위수여식 및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서 졸업생들은 의업의 길에서의 각오를 다시 한번 더 다졌다.

제 15회 대학원 의과학 및 의공학 전공 학위수여식

지난 2월 21일(수) 의대 강당에서 석사 27명(의과학 21명, 의공학 6명), 박사 4명 (의과학 2명, 중개의학 2명)을 대상으로 제 15회 대학원 의과학전공 학위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 학장식사, 학위증 수여, 시상, 졸업생 고별사, 폐회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재관 학장은 “울산대학교에서 졸업식을 진행하였지만 다시 한번 학위수여식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에 학위를 수여받는 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앞으로 의공학 및 의생명과학 분야는 융합 및 중개연구에서 더욱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졸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사과정 성적우수상은 의과학전공 최현지, 이승환, 석사과정 우수상은 의과학전공 최은영, 장유진, 신기창, 조우리, 의공학전공 박종하 졸업생이 각각 수상하였다.

Textexpander를 통한 시간절약

1년간 125시간 절약…글 입력시 낭비하는 시간줄이기

응급의학교실 서동우 교수

현대인은 손으로 글을 쓰는 경우보다 다양한 형태의 키보드를 통해 글을 입력하는 경우가 더 많다.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는 것이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다.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가 잘못된 프로그램은 손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여러 번 왕복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팁은 글을 입력할 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유추해보자. 이 통계는 textexpander에서 제공하는 통계이다.

필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년간 125시간을 절약한 것을 보여준다. 80WPM은 분당 단어수로 영문 기준 분당 400타 정도로 환산된다.

기본적인 구조…시간절약 및 오탈자 방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피곤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할 수 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평소의 습관을 전혀 변경할 필요가 없다. 내가 원래 다니는 길목에 트랩을 설치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림 1는 흔히 보내는 이메일 예시를 보여준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라는 본문 이외의 글은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

그림 1의 좌측 정도 문자만 입력하면 우측처럼 되게 해주는 것이 textexpander의 기본이다. 약간이지만 확실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Textexpander 의 또 하나의 장점은 오탈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문 작성시 'Kolmogorov-Smirnov test' 란 글귀를 여러 번 입력하게 된다면, 오탈자가 나올 수 있다.

필자의 textexpander에는 'Kolmo' 혹은 'kolmo' 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된다. 일부러 스니펫 (snippet)을 외울 필요없이 다니는 길에 트랩을 설치해두면 되는 것이다 (snippet 은 textexpander에 약속된 단어를 의미한다).

이런 스니펫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저장해두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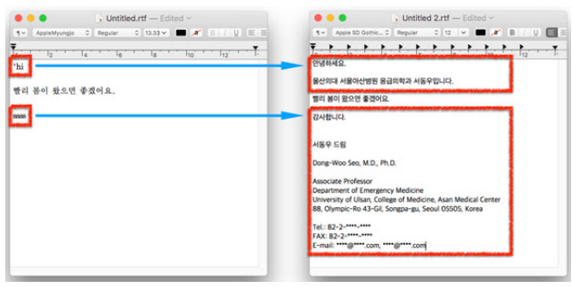


그림 1. Textexpander를 이용한 이메일 예시

응용 사례

필자의 스니펫은 300개 내외이다. 이 중 몇가지 예시를 더 들어본다. Textexpander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

그림 2는 입력창이 뜨도록 설정된 예시이다. 논문 투고시 cover letter 작성을 하게 된다. 같은 논문을 여러 저널에 순차적으로 투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단과 하단 본문의 저널명을 다르게 입력하는 실수를 하는 때가 있다.

즉시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는데, 논문 작성에 들인 수고를 생각하면 아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그림 2와 같이 cover letter 폼을 만들어두면 실수도 없고, 빠른 속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날짜와 같이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도 설정을 통해 자동으로 쓰는 시점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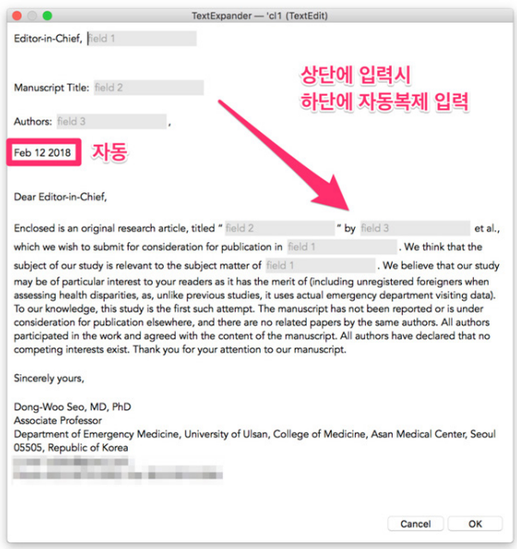


그림 2. Textexpander를 이용한 cover letter 예시

복잡하거나, 많이 반복하거나, 키 입력이 까다로울수록 textexpander는 유용하다. 그림 3와 같은 경우 내용도 외우기 어렵지만, 대소문자 중 하나만 틀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까다로운 경우에도 매우 유용하며, 자동입력 후 커서도 내가 입력해야할 첫번째 따옴표 사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Textexpander를 이용한 코드 예시

많이 반복하는 간단한 것에도 설치해두면 유용하다. 필자는 따옴표나 괄호를 입력할 때 앞쪽 따옴표나 괄호 하나만 입력하면 뒤의 것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해두었다.

커서는 자동입력 후 정확하게 따옴표나 괄호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타이핑시 신경쓰지 않고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다.

항상 대문자로 나타내야 하는 단어도 그냥 스니펫을 소문자로 입력해두고 자동입력 결과가 대문자로 나오도록 설정해두면 나는 글에 집중할 수 있다. 각각의 스니펫이 작동해야 프로그램도 각각 저장할 수 있어 활용의 폭을 넓힌다.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방법을 변경하지 말고 차근차근 트랩을 설치해보자. 이미 맥과 윈도우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이니 시간이 부족한 분이시라면 유료지만 사용해보길 권장드린다.

의사로의 첫발…의예과 입학식 및 간담회 개최

초일류 의대 지향 방향 제시…적극적 참여 의지도

우리 의대 신입생들이 지난 2월 23일(금) 오전 11시 의대 강당에서 의예과 입학식을 갖고 의사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 1부는 학장식사, 입학선서, 장학증서 전달 및 교수협의회 장학금 전달, 학교소개, 명예서약, 합창공연(의예과 1학년), 의과대학 투어 등으로 진행되었다.

송재관 학장은 식사를 통해 “우리 의대에 입학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의대에서 별도의 입학식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번에 입학한 우리 신입생들을 우리 의대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앞으로 우리 의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밝혔다.

입학식 후에는 융합연구관 15층 라운지에서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이하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초일류를 지향하는 우리 의대의 발전 방향 ▲의예과 생활 ▲학생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많은 신입생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우리 의대 발전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편 2018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환영회, 교육지도/ 이하 OT)이 지난 2월 23일 의대 지하1층 디브리핑 룸에서 진행되었다.

예비의사 첫걸음 '화이트코트 세리머니'

임상의 한계 도전해보겠다는 전문가적 자세 당부

우리 의대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이 지난 2월 23일 오후 5시 의대 1층 강당에서 2018 White Coat Ceremony를 통하여 예비의사로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 1부는 송재관 학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교수협의회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 지도교수들의 White Coat Ceremony, 명예서약, 학생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재관 학장은 "의대 본과 3학년은 일반적인 대학생들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번 화이트코트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지식이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며, "흰 가운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수도 있지만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의 자질을 기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제자들의 흰 가운을 직접 입혀주기 위해 참석한 교수진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예비의사로 입문하는 학생들은 그동안 극복되지 않은 임상의 한계를 도전해보겠다는 전문가적인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성민 학생대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의대가 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부는 융합연구관 15층 라운지에서 학부모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송 학장은 간담회를 통하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단어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강조하면서 공통역량의 적극적인 실행도 당부하였다.

또 인공지능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S.E.S(사회정서적 소양)와 독창성 및 적절성(세상을 둘러보는 생각)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너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좋았다"며, "모든 학생들이 가족 같은 마음을 담아서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환자와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은 평생 가는 것 같다"며, "환자와 같이 느끼는 능력향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임상에서 환자와의 공감 능력은 물론 가족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학장은 "이 자리의 염원이 제대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또 다른 모습과 인연으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하였다.

한편 화이트코트 세리머니는 병원으로 첫 임상실습을 나가는 의학과 3학년 학생들에게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혀주는 행사이다.

예비의사로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은 화이트코트 세리머니를 통하여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환자와 함께 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되새기며, 착복하는 시간도 갖는다.

임상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술기와 현장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료윤리, 사회적 책임 등 실질적인 교육도 받게 될 예정이다.

의과대학장 이 · 취임식

송재관 학장에 감사와 축하, 신임 채희동 학장–주요 추진과제 제시

우리 의대가 지난 3월 2일 의대 1층 강당에서 김기수 의무부총장,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등 대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과대학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제 14, 15대 학장을 역임한 후 지난 2월 28일자로 임기를 마무리한 송재관 학장은 "지난 4년간 추구하였던 변화와 발전이 우리 의대에 필요한 진정한 발전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학교에 대한 애정으로 같이 일을 해줬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안할 수 없다"며, 주요 보직자 및 행정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또 "지난 4년간 개인적으로 행복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란다"며, "신임 채희동 학장이 또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채희동 학장, 교수협의회, 동참회, 의대교직원 대표, 학생대표 등이 공로패, 감사패, 감사의 꽃다발 등을 증정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신임 채희동 학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우리 의대의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의대 구성원 모두의 꿈과 열정을 믿기 때문에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문제해결 및 도약을 해나갈 것이다"며, "울타리 및 신문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중 ▲졸업생 경쟁력 및 역량 강화 추진 ▲교수진이 연구와 교육에 매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공감하는 의대가 될 수 있도록 열린학장실 추구 ▲우리 의대 인지도(브랜드네임 강화) 향상 추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소개하였다.

채희동 학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대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교직원은 물론 재단과 동문회 등 의대의 모든 구성원들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김기수 의무부총장과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송재관 학장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하였다.

신임 채희동 학장에 대해 김기수 의무부총장은 "우리 의대 발전이 기대된다"며, "다만 공약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하였다.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신임 채희동 학장에게 모든 교직원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교육이 가능하도록 당부드리며, 서울아산병원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보직교수는 다음과 같다.

교무부학장	정유삼(이비인후과학교실)
학생부학장	이윤선(응급의학교실)
연구부학장	임영석[내과학(소화기)교실]
기획부학장	송채린(비뇨기과학교실)
교육(울산)부학장	전상현(비뇨기과학교실)
교육(강릉)부학장	이상수(산부인과학교실)
교무의학과장	이세원[내과학(호흡기)교실]
학생의학과장	신성(외과학교실)
연구의학과장	이주용(안과학교실)
대학원의학과장	유창훈[내과학(종양)교실]
대학원의과학과장	장은주(의생명과학교실)
의학과장(강릉)	김성수[내과학(류마티스)교실]
의예과장(울산)	방성조[내과학(소화기내과)교실]

교육과정평가 및 교육계획 보고회 개최

교수,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등까지 함께 우리 의대 미션, 비전 등 마련

우리 의대가 교수, 학생은 물론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타 의대 등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열어 눈길을 모았다.

우리 의대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 동관 18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학장, 부학장, 교육기획평가위원, 4학년 학생대표, 부서별 팀장, 송파구·하남시보건소장, 송파구의사회장, 동문회장, 학부모대표, 고려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교육과정평가 및 2018 교육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2017학년도 교육과정 평가 결과를 함께 검토한 것은 물론 우리 의과대학의 미션과 비전, 교육목표와 졸업성과에 대해서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실제 이 자리에 참석한 송파구 의사회장은 "교육과정이 의학적 지식과 역량에만 집중하지 말고 개인적인 성찰과 발전, 문화 예술적인 소양이 키워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부모 대표는 "사회는 의료의 사업적인 측면은 바라보지 않으려 한다. 좀 더 사회와 소통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이해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대표는 "학교 당국과 학생간의 의사소통은 어려움이 없었고 잘 진행이 되었다. 연구실습 과정이 인상적이었고 많은 참여를 하여 보람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송재관 학장은 "사회의 특별한 인재 집단을 받은 의과대학으로서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들 책무가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화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박주현 교수는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2018학년도부터는 사회와 의과대학이 소통하며 함께 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우리 의대는 지난 2014년부터 학년말에 교육기획평가위원회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평가 보고서로 만들어 왔다. 이를 통하여 각 학년이 한 해를 어떻게 학습을 하였는지, 통합과정의 각 과정이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졸업반 학생의 6년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 졸업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서의 역량 등을 재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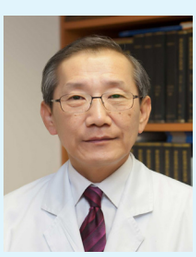
2017학년도 평가에서는 특별히 학생들의 교육적인 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도와 공감능력 측정 결과를 추가하여 더 흥미로운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대 교수 5명 정년퇴임…새 출발

우리 의대 교수 5명이 지난 2월 28일자로 정년퇴임을 갖고, 제 2의 인생을 위한 출반선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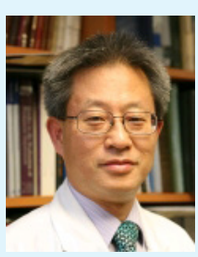
이번에 정년을 맞이하는 교수진은 ▲송군식(영상의학교실, 1982년 서울대의대 졸업, 1991년 8월부터 울산대학교 교수) ▲이봉재(이비인후과학교실, 1979년 서울대의대 졸업, 1989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 교수) ▲이영수(내과학교실, 1977년 서울대의대 졸업, 1996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 교수) ▲전재명(정형외과학교실, 1976년 서울대의대 졸업, 1995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 교수, 옥조근정훈장 포상) ▲문윤식(치과학교실, 1977년 경희대치대 졸업, 1989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 교수, 근정포장 포상) 등이다.

이번에 정년퇴임을 맞이한 교수들은 모두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위촉이 되었고, 다양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송군식 교수

이봉재 교수

이영수 교수


전재명 교수

문윤식 교수

“의대 소식지 100호, 200호까지 계속 나오길 기대하며”

임영석 울산의대 소식지 초대편집위원장

지난 2014년 7월호 창간호를 시작으로 발행이 시작된 우리 의대 소식지가 벌써 발행 22호를 맞이하게 됐다.
임영석 초대편집인 겸 홍보위원장은 이번 22호 소식지 작업을 끝으로 의대 연구부학장을 맡게 되었다.
이어 23호부터는 도경현 신임 홍보위원장 겸 편집인이 소식지 발행을 맡게 된다.
이에 창간부터 22호까지 소식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 온 임영석 초대편집인 겸 홍보위원장의 그동안 감회를 일문일답형식으로 들어본다.
(전체 내용은 우리 의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1. 초대 편집인으로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지난 2014년 5월경에 송재관 학장님과 김승후 기획부학장님으로부터 홍보위원회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무척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호만 잘 넘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매 호를 한땀 한땀 만들었었는데, 어느덧 2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호, 200호까지 계속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2. 소식지 발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시다면?

A.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소식지를 격월로 홀수달에 발행했기 때문에 짝수달 마다 원고 마감에 많은 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B. 우리 의대 홈페이지를 2015년 대폭 개편하였던 일과 2016년부터 웹진을 만들어서 이메일로 발송한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 의대의 모든 중요 활동상들이 디지털화되어 홈페이지와 누군가의 이메일 박스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게 된 점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의대의 역사가 이제 30년이나 되었는데, 기록을 홈페이지와 웹진, 소식지의 형태로 그 때 그 때 잘 보존하여 앞으로 10년 혹은 2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C. 개인적으로는 기사 작성에 언제나 적극적인 기여를 해준 많은 학생기자들이 해마다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고 고마웠습니다.

임영석 편집위원장(왼쪽 세번째)과 학생기자들(왼쪽부터 김은영, 김성은, 김경훈, 김지애, 조민성)

3. 현재 우리 소식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발행을 통한 최대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우리 의대의 30년 역사 중에 적어도 지난 4년간 일어난 중요 활동들이 온전히 체계적으로 기록화 한 것이 우리 소식지의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B. 전국 의대 중에 이렇게 소식지 등의 홍보 및 기록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속해 온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의대의 위상과 역량이 그만큼 높아졌고 이제 명실상부하게 명문의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소식지 발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고, 소식지의 비전을 말씀해주신다면?

A. 우리 의대의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모든 구성원들의 활동의 총합입니다. 비록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직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모든 700여분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식지에서는 모든 교수님들이 의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미담, 우리 의대의 세계 의학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미담을 많이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기부자 정보

성명(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휴대폰	전 화(자택/직장)	
	E-Mail	직장명/부서/직위	
기부자 구분	□동문 □학생 □학부모 □교직원 □기업 □일반 □후원의집 □기타( )		

▮약정내역

약 정 액	원 (₩)		
기 금 용 도	□ 교육여건개선기금	울산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 지정기금	부서:	용도: 위임( ), 장학기금( ), 연구기금( ), 기타( )
		기부하시고자 하는 부서와 용도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예) 부서: 대학 전체, 대학, 전공, 연구소 등 / 용도: 장학, 지정기금, 연구, 특정 목적기금 등	
		특정 부서에 지정기탁하시는 경우, 기탁금 중 10%가 일반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장학금 제외)	

▮납부방법

□ 일 시 불	기부예정일	년 월 일 까지 납부		
	거래은행	경남 540-07-0174998	□ 국민 661-01-0514-551	□ 농협 1168-01-075861
		□ 외환 038-13-44809-1	□ 신한 100-014-657050	예금주: 울산대학교
□ 분할납부	□ 자동이체 (CMS)	약정금액	매월 원(₩)	
		기부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총 회)	
		이 체 일	□ 15일, □ 25일	거래은행 / 계좌번호
		예 금 주		
		CMS는 울산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 급여공제	약정금액	매월 원(₩)	
		기부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총 회)	
		이 체 일	15일	울산대학교 교직원만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이용목적		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자 서비스(예우프로그램의 시행, 뉴스레터 발송 등) 제공목적 나. 후원자 초청행사 등 기타 특별 서비스 제공시 본인확인, 공지사항 전달등의 목적 다. 발전기금 출금(CMS 등)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자택·직장·휴대폰), 이메일, 약정금액, 기부용도, 납부기간, 납부방법
	선택	위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 요청 시 삭제.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금 결제정보 보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불이익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세액공제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후원자 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대외협력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 2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부정보 공개여부 ※ 기부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기부정보 공개여부	□기부(약정)자 명단(홈페이지/책자 등) □교내기사(홈페이지/책자 등) □언론보도 □대학 내부회의

▮문수 울산대학교 대외홍보팀

Tel. (052) 259 - 1010,1011
Fax. (052) 259 - 1012
Mail. parkay@ulsan.ac.kr
bridge@mail.ulsan.ac.kr

위의 내용과 같이 울산대학교 발전기금모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인)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 별첨1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약정서 안내 참조) – 자 동 이 체 :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 의과대학 **장 학 금** :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위 임** : 의과대학 관련 기타 발전기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연구목적기금** : 연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대학발전기금(법정기부) 세제혜택〉

세제혜택 과정

기부금 납부 → **영수증 수취**

·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발전기금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공 제 방 법: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3,000만원 이하: 연간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분의 25%
예)10 만원 기부: 10 만원 × 15% = 1만 5천원
100 만원 기부: 100 만원 × 15% = 15만원
4,000만원 기부: 3,000만원 × 15% + 1,000만원 × 25% = 475만원

- 관 련 법: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 4

법인 (주식회사, 법인단체)

- 공 제 방 법: 손금인정(비용처리)

- 손금산입한도: (연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액) × 50%

- 관 련 법: 법인세법 제24조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후원(약정)서

☐ **무기명 후원 희망 :** 무기명 후원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성명(사업체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E-mail**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후원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 기부 영수증 발행

나. 감사서신 발송 및 후원 결과 보고

다. 개인 후원 현황 및 EVENT 안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후원(약정)서 내 인적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후원 종료 후 5년까지 보유합니다.

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_____ **(서명)**

후원 용도(선택)		☐ 불우환자지원기금 ☐ 교육기금 ☐ 연구기금 ☐ 의료균형발전기금 ☐ 병원발전기금 ☑ 기타
		세부내용 울산의대 교육연구기금
후원방법(선택)	**☐ 일시후원**	입금자명 후원금액 원
	☐ 정기후원	입금자명 월 후원금액 원
		이체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에 후원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후원자 _____ **(서명)**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 별첨2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후원(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 서울아산병원 지정계좌 (KEB 하나은행)175-13-06158-7 **예금주 : 아산사회복지재단** - 자동이체 :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용도 기입)	- 후원(약정)서 용도(선택) 세부내용 : '울산의대 발전기금'기입

〈서울아산병원(지정기부) 세제혜택〉

1. 세제혜택

1) 법인이 1억을 기부할 경우

① 법인 정보(예시)

매출액	비용	지정기부금	당기순이익	비 고
15억원	12억원	1억원	3억원	세제혜택 : 소득금액의 10%

② 세금감면효과 비교

구분	미 기부	기부시
소득금액	3억원(공제액 : 없음)	2억 7천만원(공제액 : 3천만원)
법 인 세	4천 2백만원	3천 5백 4십만원
세금효과	-660만 원	

2) 법인세 설명

① 미 기부시

= 2천만원(2억 * 10%) + 2천 2백만원 (1억원 * 22%) = 4천 2백만원

② 기 부 시

= 2천만원(2억 * 10%) + 1천 5백 4십만원 (7천만원 * 22%) = 3천 5백 4십만원

2. 기타사항

1) 법인 세율 : 소득금액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는 22%

2) 당해년도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편집후기

우리 의대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지난 3년 6개월간 노력을 해온 편집위원들의 짧은 후기를 통하여 그동안의 열정을 담아본다. 또 앞으로 더 발전하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의지와 기대도 담아본다.

김승후 위원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모양새를 갖춘 소식지가 우리 학교의 살아있는 역사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도경현 위원

지난 3년간 우리 의대의 새롭고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학생기자 여러분, 김영신 홍보자문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기다리는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아침 까치소리처럼 반가운 울산의대 소식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남국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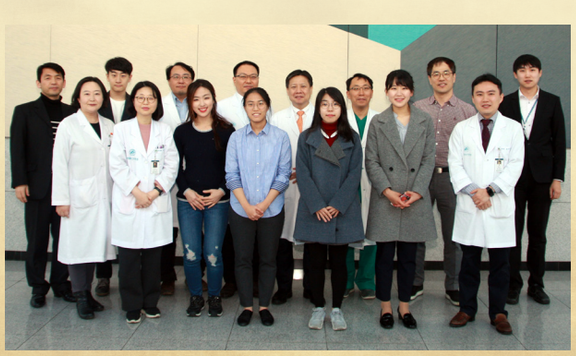
이번 의대 소식지를 만들면서 기존에는 알수 없는 울산의대 관련 많은 소식을 알게되어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소식지 및 홍보 활동이 계속되어 의과대학의 역사와 전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덕복 위원

벌써 4년이나 지났네요.
이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임영석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김 기자님 등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

유창훈 위원

그동안 학생코너 담당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과의 접점이 많아졌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만으로도 벅찰텐데 기사 아이디어를 내고 작성해주는 학생기자단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홍보위원회 및 소식지 편집위원 일동

정석훈 위원

뉴스레터가 업그레이드되고 더 풍부한 내용이 담긴 소식지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허진원 위원

의과대학 소식지 창간호를 준비하기 위한 첫 모임 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임영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김영신 기자님, 의대 이정현 선생님, 목현수 선생님,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22호까지 무사히 마치고 홍보위원회를 떠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다음 홍보위원회도 좋은 소식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주용 위원

지난 4년간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홍보위원님들과 일하면서, 학교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대 소식지가 활발한 소식 공유의 장으로 계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방성조(울산대병원) 위원

울산의대 소식지 편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울산대학교병원의 소식을 많이 알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임영석 위원장님, 편집위원님들, 김영신기자님 등 많은 분들의 수고로 훌륭한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은 저에게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종규(강릉아산병원) 위원

우리학교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학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우리 소식지를 통해 전해지길 바랍니다

김영신 기자

의대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위원님들과 학생기자들은 물론 울산의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소식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의대의 도약을 위하여 귀한 정성을 모아 발전기금 조성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보태어 주신 기금은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과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부문의 : 의과대학 기획총무팀 박미경, 02-3010-4212, pmk225@ulsan.ac.kr

(의)영훈의료재단 선병원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주)대웅제약
(주)메드스타
(주)아벤티스파마
(주)에피젬
(주)자이스비전
(주)제일코비
(주)한국팜비오
(주)한독약품
(주)한미약품
KB오토시스(주)
SB지앤미피부과
강경남
강기순
강릉아산병원 비뇨기과
강민원
강병문
강보현
강신광
강영호
강윤영
강지영
고경남
고기영
고대철
고윤석
고재곤
고재영
고정민
고태성
공경엽
곽미정
구교희
구승우
구영모
국문석
국윤준
권도훈
권동하
권석운
권순억
권양
권정훈
권중근
권태원
권혁면
권혁수
김강모
김건석
김경모
김경봉
김광국
김국향
김규래
김규민
김규표
김기수(내분비내과)
김기수(소아청소년과)
김기용
김기훈
김나영
김대연
김대영
김대환
김덕수
김도훈
김동관
김동순
김동한
김동호
김동희
김문규
김미나
김민경
김민관
김민선
김민한
김범준
김병식
김상연
김상윤
김성배
김성원
김성윤
김성철
김성학
김소연
김송철
김순배
김승익
김승후
김승훈
김아람
김아영
김애란
김양수
김양호
김영국
김영식
김영일
김영탁
김영훈
김예슬미
김용길
김용년
김용만
김용희
김우건
김우성
김원
김원구
김원동
김원영
김유겸
김유호
김은경
김은기
김의현
김인구
김자천
김장한
김재용
김재웅
김재중
김정선
김정재
김정훈
김종민
김종성
김종욱
김종혁
김주형
김중곤
김지연
김지희
김진삼
김진천
김창윤
김창진
김청수
김태경
김태곤
김태면
김태범
김태원
김표년
김학희
김향숙
김헌수
김헌식
김혁
김형렬
김형석
김혜원
김홍미
김홍철
김효원
김효준
김희철
나도선
나수영
나영신
남경현
남광우
남규준
남기병
남순열
남재식
남정권
남주현
노성우
노재윤
노종렬
노환성
녹십자피비엠
렘브란트치과병원
류진숙
리지엔피부과
명승재
문기찬
문대혁
문덕복
문혜현
문희범
민영일
민원기
박견
박광민
박동석
박만호
박민우
박민욱
박상혁
박선태
박성욱
박수길
박수성
박순엽
박영서
박영석
박용만
박인숙
박정미
박정식
박정준
박정혁
박정훈
박종연
박종훈
박주현
박준범
박준원
박중열
박지선
박지웅
박진훈
박찬식
박찬정
박춘식
박평환
박현도
박형근
박혜순
박홍주
방성조
방진현
배균섭
배재설
백승철
변재호
봉승원
부광약품(주)
부국철강㈜
빈성일
상진
서대철
서동만
서동완
서동우
서동운
서민철
서석범
서영일
서완우
서용덕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여교수회
서을주
서정수
서정한
서종만
서종진
서준범
서철원
서현일
선우성
성경제
성상진
성인영
성흥섭
센스피부과
소상필
소영신
손병호
손우찬
손우철
손은철
손창환
손훈성
송관수
송군식
송규영
송명근
송재관
송진우
송하림
송현
송호영
신광호
신동명
신명진
신용문
신용욱
신재명
신창일
신현수
신희정
심보성
심예은
심지연
심창선
심태선
안강민
안광현
안병렬
안세현
안승도
안재우
안준우
안지환
안철수
안태영
안태환
안한종
안형진-홍사라
안효숙
양대석
양석균
양성애
양성준
양원석
양윤자
양진석
양홍석
엄진섭
염창선
오리엔트바이오
오범진
오성태
오수진
오연목
오영삼
오재민
오진숙
오흥범
옥금희
올림푸스한국(주)
우리강산(김영배)
우준희
우지영
울산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울산의과대학 영상의학과
울산의대 1기 동문 일동
울산의대 2기 동문 일동
울산의대 3기 동문 일동
울산의대 4기 동문 일동
울산의대 24회 졸업생 일동
울산의대 25회 졸업생 일동
원종현
원철희
원혜성
유건식
유근식
유동곤
유빈
유서연
유승주
유승훈
유은실
유일디텍(최홍)
유종윤
유창식
유한욱
유화경
육근영
육정환
윤기환
윤두환
윤상민
윤성언
윤성원
윤승용
윤영희
윤용식
윤종현
윤주영
윤준오
윤준오
윤창민
윤태진
윤태현
윤현기
의과대학 교학행정실 직원 일동
의과대학총동문회
이경진
이계안
이광선
이규형
이기업
이기천
이다인
이대호
이덕희
이동규
이동현
이동호
이랑자
이무송
이문규
이미숙
이민재
이병섭
이병용
이봉재
이상구
이상도
이상수
이상암
이상열
이상일
이상훈
이석기
이석우
이선호
이성구
이소연
이수호
이승규
이승수
이승호
이승환
이연주
이영상
이영수
이영준
이우제
이우창
이유미
이윤선
이윤세
이윤식
이은주
이재담
이재련
이재순
이재원
이재진
이재형
이재호
이재호
이재홍
이정교
이정선
이정식
이정신
이정훈
이제환
이종률
이종원
이종철
이주연
이주용
이주희
이중선
이중현
이지희
이진혁
이철
이철
이철환
이충욱
이태훈
이택종
이필량
이한주
이해웅
이혁수
이혜경
이호규
이호승
이화정
이희란
이희재
일동제약
일성신약(주)
임경수
임소윤
임승수
임승철
임영석
임정길
임종현
임주혁
임채만
임채헌
장근두
장다솜
장성은
장수환
장연진
장영
장용주
장은주
장재석
장학
장현호
장흥문
장희종
전누리
전사일
전영훈
전은영
전재명
전재용
전현경
전혜린
정경해
정경화
정부식
정석훈
정성량
정성문
정영화
정종우
정창진
정철현
정태기
정태웅
정훈용
제갈양진
조경식
조경자
조돈현
조미향
조범진
조성강
조성래
조성우
조성윤
조성자
조영걸
조영미
조우신
조원희
조유숙
조윤경
조은희
조창훈
조태심
조현석
조현선
조홍신
조홍준
주명수
주석중
㈜에스에이씨
주연호
주철현
중외제약
지부환
지현숙
진동훈
진영수
차주희
차충환
차현석
차흥원
채희동
최경효
최규택
최기준
최두영
최범림
최상호
최승호
최우석
최윤백
최은경
최재원
최정현
최종우
최종태
최지호
최진미
최충곤
최한석
최현철
칼자이스(주)
편성범
하상호
하승룡
하현권
한국LILLY(주)
한국쉐링(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한국존슨앤존슨
한기훈
한덕종
한동엽
한만희
한명월
한미치과의원
한오수
허선
허수진
허재완
허주령
허주영
허진
허진원
현대시멘트(주)
홍명기
홍상범
홍석경
홍석준
홍수종
홍용상
홍원선
홍준표
홍준혁
홍진표
홍창기
홍혜남
황규삼
황승준
황신
황온유
황윤우
황재현
황호민

본 명단은 2018. 2. 28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